

게임으로 하나된 여름, ‘2025 전국장애인이(e)스포츠대회’ 현장 스케치

2025. 9. 10.



지난 8월 23일과 24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2025 전국장애인이(e)스포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e스포츠 행사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모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죠.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의 34명 역시 PC와 콘솔 부문에 출전해 활약했습니다. 쿠팡 뉴스룸 팀이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쿠팡과 함께 만드는 변화



‘2025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조정연맹과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이 주관한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천시의 후원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체·시각·청각·지적·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 266명과 관계자 86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선수들은 PC와 콘솔 부문에 출전했으며, 각 종목은 장애 유형별로 구분된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볼링 부문의 서민수 선수가 포용경영팀의 지원을 받으며 경기 전 기합을 넣고 있다.

대회 현장에는 쿠팡 포용경영팀도 함께했습니다. 대회장에서 긴장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간식과 음료를 건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 직무를 소개하는 채용 홍보 부스도 같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쿠팡 e스포츠 선수들이 쿠팡 유니폼을 입고 대회장에 모였다.



(왼쪽부터) 혼성 FC온라인 지체·뇌병변 부문에 출전한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이모세 선수와
혼성 닌텐도 스위치 볼링 지적(발달) 부문 결승전에 출전한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조은빈 선수

대회 당일, 선수들은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쿠팡 유니폼을 입고 모였습니다. 익숙한 연습 환경을 떠나 공식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목표를 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 출전은 처음이라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박유민 선수/카트라이더

“대회 경험을 쌓아 언젠가는 수상대에 올라가 보는 게 꿈입니다.”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이모세 선수/FC 온라인

“출전 선수가 많아 긴장되지만 후배들한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꼭 1등 해내겠습니다.”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조
은빈 선수/닌텐도 스위치 볼링

선수들의 다짐은 곧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은 PC와 콘솔 부문에서 총 메달 17개(금메달 8개, 은메달 5
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장내. 쿠팡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쿠팡 선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훈련에 매진해온 것은 물론, 쿠팡이라는 든든
한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보고 주도해 나가는 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애 첫 공식 무대였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
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쿠팡을 통해 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경기에 임할 수 있고, 팀을 위해 된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비인기종목인 장애인 e스포
츠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안상원 선수/리그오브레전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장희철 선수와 부모님의 모습

특히 장희철 선수는 혼성 FC 온라인 지적(발달) 부문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쿠팡에 합류하면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얻은 그는 “향후 e스포츠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쿠팡 입사 이후 독립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팡처럼 큰 회사에서 비인기종목까지 포용하며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며, “이런 기회가 아들에게 책임감을 더 해주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게 해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성 카트라이더 지체·뇌병변 부문에 출전한 박유민 선수.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박유민 선수의 잠재력을 알아본 장애인 복지관에서 쿠팡 e스포츠 직무를 추천해 입사했다.

카트라이더 종목에 출전한 박유민 선수에게는 이번 대회 의미가 남다른데요. e스포츠 선수로서 처음 도전한 공식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 지체 장애를 가진 그는 “쿠팡의 재택근무 덕분에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연습량을 늘릴 수 있었고,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집중도 훨씬 잘 됐다”며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박유민 선수의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수동적이던 아이가 쿠팡에 입사한 뒤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보며 예전보다 훨씬 의욕적인 모습이 느껴집니다. 점점 밝아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사고 이전의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전문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다



DRX 양선일 대표이사(왼쪽)와 쿠팡 포용경영팀 송현 팀장(오른쪽)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쿠팡은 선수들의 성장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글로벌 프리미어 e스포츠 팀 DRX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DRX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등에서 세계적인 프로 선수를 다수 배출한 명문 게임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쿠팡 e스포츠 선수들은 1:1 코칭, 전술 분석, 멘탈 트레이닝 등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선수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그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쿠팡, 명문 프로 게임단 DRX와 손잡고 장애인 e스포츠의 꿈을 키우다](#)



FC 온라인 종목에 출전한 쿠팡 e스포츠팀 박주현 선수

FC 온라인 종목의 박주현 선수는 지체장애가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게임 패드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피파 온라인을 누구보다 능숙하게 플레이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왔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처음 e스포츠 직무로 취업한 그는, 이후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쿠팡으로 이직했습니다. 현재는 DRX와의 협업으로 마련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전문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쿠팡이 e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DRX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전술이나 공격 방식 같은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재택근무 덕분에 훈련량도 이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쿠팡 e스포츠팀 김민준 선수(왼쪽)와 김규민 선수(오른쪽)

특히 형제 선수인 김규민·김민준 선수는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김민준 선수는 “게임은 제 삶의 일부였는데, 그것이 직업으로 이어지니 의미가 훨씬 커진 것 같다”며, “DRX 코칭 이후 처음 나선 무대였는데, 코치님들이 초반 라인전의 디테일까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1:1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근위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지만, 게임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재택근무와 DRX 코칭 프로그램 덕분에 연습 환경이 훨씬 좋아졌고,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대회에 출전해 계속 우승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혼성 리그오브레전드 지체·뇌병변 부문에 출전한 쿠팡 e스포츠팀 박민성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도 값진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동메달을 목에 건 박민성 선수는 “쿠팡 입사 전에도 게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짜 ‘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은 DRX의 체계적인 코칭 피드백을 받으며 꾸준히 훈련한 덕분에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쿠팡 e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정재희 캡틴의 모습. 정재희 캡틴은 과거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로 활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든든한 조연자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정재희 캡틴은 “DRX 코칭을 통해 선수들의 플레이가 더욱 전문적이고 세밀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캡틴은 단순히 훈련과 실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삶의 고민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선수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고민, 때로는 인생 상담까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자주 생기는 만큼, 정서적인 케어와 빠른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값진 경험을 쌓은 만큼,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 선수단이 대회 참가를 기념하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은 유통업계 최초로 신설된 장애인 e스포츠 직무입니다. 쿠팡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게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스스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각 선수들은 쿠팡 임직원으로서 복리후생과 재택근무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으며, DRX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전문 훈련 시스템 속에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소속 장애인 e스포츠팀이 더 많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